[2026] 한주간 쉽게 보는

국내 미래산업 연구 및 정책동향

Domestic Future Industry Research and Policy Trends

No. 154



The Jeju Institute 제주연구원 | www.jri.re.kr

Contents

※ 2026.10.28.(수) 기준(대상 기간 : 2026.10.21.~2026.10.27.)

□ 중앙정부·지자체 정책 동향 1

▪ 탄소중립 분야 1

- 고용노동부, 정의로운전환 특구 지정기준 행정예고(2026.10.24) ····· 1
- 산림청, 개정 국유림법 시행으로 국산목재 활용 확대(2026.10.22) ····· 1
- 이종배 의원, 메가프로젝트·NDC 정책 정합성 점검(2026.10.27) ····· 2

▪ AI 분야 3

- 기후에너지환경부, AI 로드킬 예방시스템 시범 운영(2026.10.27) ····· 3
- 경북도, 피지컬 AI 메가특구 우선 추진과제 선정(2026.10.22) ····· 3
- 완주군, 피지컬AI 실증단지 조성 지원 본격화(2026.10.21) ····· 4
- 인천경제청, AI·바이오 등 제2차 발전계획 수립(2026.10.21) ····· 4
- 구미시, AI 로봇 도입으로 초등 돌봄 공백 축소(2026.10.26) ····· 5

□ 중앙·지방기관 연구 동향 6

▪ 탄소중립 분야 6

- KTC, 탄소중립 차세대 냉매 국제심포지엄 개최(2026.10.23) ····· 6

- 남동발전 컨소시엄, 포항 바이오매스 발전 급물살(2026.10.25) ····· 7
- 전북연구원, 새만금 탄소중립 실증거점 육성 제안(2026.10.22) ····· 7
-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어린이·어르신 탄소중립 교육(2026.10.21) ····· 8

▪ AI 분야 9

- SH, 은평구 공공주택 AI 난방 제어 시범 도입(2026.10.27) ····· 9
- 경기도교육청, 중학교 생성형 AI 사용 금지 검토(2026.10.27) ····· 9

□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10

▪ 탄소중립 분야 10

- 지바이크, 지쿠 전기자전거 탄소중립포인트 4배 적립(2026.10.23) ····· 10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화석연료금융 백서 발간(2026.10.27) ····· 11

▪ AI 분야 12

- KAI, 우주서 AI 위성 고장 진단 실증 성공(2026.10.21) ····· 12
- KT, 인천 UAM 실증서 AI 교통관리 기술 검증(2026.10.21) ····· 12
- 아이엘, 피지컬AI 데이터 플랫폼 '피데이텀' 공개(2026.10.26) ····· 13
- 바딧, AI 정밀사육 솔루션으로 송아지 폐사율 감소(2026.10.22) ····· 13
- 포스텍, 로데슈바르즈코리아와 AI 캠퍼스 협약(2026.10.23) ····· 14

중앙정부·지자체 정책 동향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정부	□ **고용노동부, 정의로운전환 특구 지정기준 행정예고(2026.10.24)** - 고용노동부가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나 지역경제 침체 등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선제 지원하기 위한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지난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으며, 지난 7월 발표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및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의 후속 조치 - 특구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등 전환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광역지자체는 신청 전 협력업체 노사와 지역 주민 등 전환 당사자 의견을 수렴해 자체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이라는 필수 요건과 고용환경의 현저한 변화 등 선택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지정 가능 - 지정 기간은 기본 2년에 심의를 거쳐 1회 2년 연장, 특별한 지원 필요 시 1년 범위 추가 연장으로 최장 5년이며, 지정 시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업 예방·재취업 촉진·기업 경영안정·지역산업 전환 촉진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한국고용정보원 등 '중앙 지원센터'와 지자체 설립 '지역 지원센터'가 운영을 지원
	□ **산림청, 개정 국유림법 시행으로 국산목재 활용 확대(2026.10.22)** - 산림청이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와 목재산업 육성을 위해 개정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유림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으며, 지난 4월 개정된 이번 법률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림부문 추진전략의 하나로 추진돼 공공부문의 국산목재 활용 확대 기반을 마련 - 개정 법률에 따라 국가기관과 산림분야 공공기관은 목조건축 관련 연구개발과 실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정부	증사업 등에 필요한 국산목재를 무상으로 양여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됐으며, 공공부문이 국산목재 활용을 선도하고 목조건축 기술 개발과 관련 산업 발전을 이끄는 한편 안정적인 수요 기반 조성과 목재산업 성장 동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전망 - 산림청은 탄소를 저장하는 국산목재 활용을 늘려 목재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고 목조건축 연구개발과 실증사업을 통해 국내 목재산업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박은식 산림청장은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국산목재 이용을 확대해 수요를 견인하고 목재산업뿐 아니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
	□ **이종배 의원, 메가프로젝트 · NDC 정책 정합성 점검(2026.10.27)** -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정부가 AI데이터센터(AIDC)·반도체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국가 성장동력으로 내세우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전력수요 전망과 탄소감축 경로는 선명하지 않다며 메가프로젝트와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간 정책 정합성을 집중 점검 - 이 의원은 정부가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AIDC 전력수요를 기존 계획보다 3~4GW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대통령은 전격전, 기후부는 지연전을 쓰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AIDC 전력수요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곳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며 현실적 수요를 감안해 반영하겠다고 답변 - 이 의원은 프로젝트 성공에 최대 38GW의 전력이 필요한데 이에 따른 추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후부가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며 메가프로젝트가 NDC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또 다른 결정적 이유라고 지적했으며, 김 장관은 AI 혁명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과 탄소중립 목표 간 상충을 인정하면서도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석탄 위주로 메울 수는 없다는 입장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정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AI 로드킬 예방시스템 시범 운영(2026.10.27)**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8일부터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산리 국도 17호선에서 AI 기반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예방시스템'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으며, 생태통로나 유도 울타리 등 기존 예방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교차로·진출입로 등에서 운전자의 감속을 유도해 동물과의 충돌 사고를 줄이려는 취지 - 예방시스템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속 사람·사물·동물을 AI로 식별해 야생동물 출현을 감지하면 전방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에 경고 문구를 띄우고 경광등을 점멸해 운전자에게 알리는 방식이며, 기후부는 포스코DX와 협력해 지난해 경기 양평군과 강원 횡성군·평창군 등 3곳에서 시범 운영해 왔고 이번 청주 구간 도입으로 총 4곳으로 확대 - 이번 사업은 2024년 7월 기후부와 포스코DX, 국립생태원, 국립공원공단이 체결한 민관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기후부가 총괄·행정 지원, 포스코DX가 AI 감지 시스템 개발·설치, 국립생태원이 사고 다발 구간 분석과 설치 지점 선정을 지원하는 구조이며, 기후부는 내년까지 로드킬 다발 구간 1곳에 추가 설치하고 사고 예방 효과를 분석할 계획
지자체	□ **경북도, 피지컬 AI 메가특구 우선 추진과제 선정(2026.10.22)** - 경북도가 인공지능으로 로봇과 설비를 제어해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실물 인공지능(피지컬 AI)'을 메가특구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21일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경상북도 메가특구 기획 거버넌스 출범식'을 열어 기업·투자기관·지자체가 참여하는 공동기획에 착수했으며, 기업이 제시한 현장 문제를 기술개발·실증과 설비투자·제품 구매까지 연결할 계획 - 도는 제조 인공지능 전환(AX)·피지컬 AI와 동해안 탄소중립 에너지, 농생명 바이오를 3대 메가특구 후보로 검토하며 피지컬 AI를 1순위로 구체화해 정부 정책과 연계할 구상이며, 기업이 불량검사·위험작업·물류·조립 등 현장 과제를 제안하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면 포스코DX와 구미 로봇기업 HT로보틱스 등 참여기관이 로봇 개발과 부품 공급, 실증·양산, 도입 방안을 함께 설계 - 포항 로봇파운드리와 구미 양자 시스템 파운드리도 첨단제조 기반으로 연계해 포항 영일만산업단지에는 뉴로메카가 1800억원을 단계적으로 투자해 협동로봇과 휴머노이드 등을 생산하는 시설을 조성하고, 구미에서는 아이온큐와 SDT의 기술을 결합해 양자 부품 제조·포장과 완성 시스템 조립·시험을 위한 생산기반을 마련할 구상
	□ **완주군, 피지컬AI 실증단지 조성 지원 본격화(2026.10.21)** - 전북 완주군이 국내 최초 실물 인공지능(피지컬AI) 실증단지 조성을 위한 행정 지원과 건축비 분담에 나서며 지역 제조산업의 인공지능 전환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낸다고 21일 밝혔으며, 실증단지 조성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기업들이 실제 공장 환경에서 신기술을 검증하고 사업화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결정 - 실증단지는 2030년까지 총사업비 7368억원을 투입하는 국가사업의 핵심 기반시설로 전북대학교 등 수행기관이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일원 약 1만 평 부지에 조성할 예정이며, 내년 설계와 인허가를 거쳐 2028년 착공, 2030년 완공을 목표로 공동연구개발센터와 인공지능 반도체(NPU) 기술실증 스테이션, 실증 메타팩토리가 들어설 계획 - 수행기관은 개발 기술을 전북지역 제조기업의 실제 생산라인에 적용해 사업화로 연결하고, 완주군은 지난 9월 착수한 '실물 인공지능(피지컬AI) 산업 육성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12월 마무리해 산업 육성 방향을 구체화할 예정이며, 유희태 군수는 실증단지가 계획대로 조성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성과가 군민 일자리와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
	□ **인천경제청, AI·바이오 등 제2차 발전계획 수립(2026.10.21)**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영종·청라국제도시와 강화남단 신규 지정 지구의 성장 전략을 담은 제2차 발전계획 수립에 나선다고 21일 밝혔으며, 계획 기간은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2027년부터 2032년까지로 제1차 발전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23~2032년)의 주요 내용을 반영해 중장기 발전 방향과 목표를 설정할 예정 - 핵심전략산업 고도화를 위해 인공지능(AI) 첨단산업, 바이오사이언스, 문화·콘텐츠·여가, 에너지기반산업 등을 대상으로 산업별 진단과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정주여건을 진단해 웰니스 도시 조성과 문화·관광 복합도시 기능 강화 전략도 수립함으로써 산업 경쟁력 확보와 함께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환경 개선과 관광 기반 확충을 추진할 구상 - 인천경제청은 앞서 청장 주재 중간검토회의로 수립 상황을 점검하고 포럼을 개최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으며, 11월 시·군·구 의견 청취 등을 거쳐 12월 최종보고회를 열고 발전계획을 산업통상부에 제출할 예정이고, 김홍은 기획조정본부장은 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지역별 특성을 살린 중·장기 발전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강조
지자체	□ **구미시, AI 로봇 도입으로 초등 돌봄 공백 축소(2026.10.26)** - 구미시가 야간에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돌봄시설 확충과 AI 로봇 등 첨단기술 도입을 통해 초등 돌봄의 시간적·공간적 공백 줄이기에 나서고 있으며, 다함께돌봄센터 22개소를 운영하며 연간 8만 6천여 명의 이용을 지원하는 경북 도내 최다 규모로 맞벌이 가정과 방학 중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상황 - 시는 지난 7월과 9월 산동쌍용·산동중흥 마을돌봄터를 잇달아 개소했고 2023년 11월 전국 최초로 자정까지 운영하는 '구미24시 마을돌봄터'를 열어 야간·긴급상황 대응 기반을 마련했으며, 지난 여름방학부터 학교별 방학 일정에 맞춰 최대 30일간 이용할 수 있는 '틈새돌봄'을 운영해 2027년에는 지원 기간을 최대 66일까지 확대할 계획 - 구미24시·새마을24시 마을돌봄터를 중심으로 책을 읽어주는 AI 클로바와 코딩로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봇, 사이버도서관 등을 운영하며, 구미24시 마을돌봄터는 경상북도 'AI 돌봄 지원 로봇 보급 시범사업'에 선정돼 1억 원 상당의 돌봄로봇을 지원받았고 AI 돌봄봇은 정서교감 대화와 어린이 콘텐츠 제공, 위험행동 감지 알림과 화재 감지 기능을 갖춘 구성

중앙·지방기관 연구 동향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기관	□ **KTC, 탄소중립 차세대 냉매 국제심포지엄 개최(2026.10.23)**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이 수소불화탄소(HFCs) 감축과 저온난화 냉매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2026 탄소중립 시대 차세대 냉매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으며, 이번 심포지엄은 21일부터 23일까지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6 한국국제냉난방공조전(HARFKO 2026)'의 부대행사로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등과 공동주관 - 정책·인증 세션에서는 한국환경공단, 미국 냉동공조협회(AHRI), 호주 냉동공조협회(AREMA),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의 전문가가 발표했고 장재훈 KTC 본부장이 냉매 회수 정보를 실시간 기록하고 국가 냉매관리시스템(RIMS)과 연계하는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했으며, 기술 세션에서는 글로벌 기관·기업이 대체냉매 기술동향과 시장 전망을 발표 - 우리나라는 몬트리올 의정서 키갈리 개정서에 따라 2024년 HFC 생산·소비 기준수량을 동결하고 2045년까지 80% 감축을 추진해야 하며, KTC는 불소계 온실가스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기관	대체전환 기술지원과 국가 온실가스 통계 고도화 연구를 수행해 왔고 정책연구·기술개발·현장실증·시험평가를 연계해 기업의 냉매 전환을 지원할 방침
	□ **남동발전 컨소시엄, 포항 바이오매스 발전 급물살(2026.10.25)** - 철강경기 침체 여파로 포항의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포항시 영일만3 일반산업단지에 미이용산림을 활용하는 '바이오매스 발전 사업'이 대안으로 떠오르며 급물살을 타고 있으며, 이 사업은 목재 부산물과 농업 잔재물 등 생물 유래 자원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열병합발전(CHP) 적용 시 전력과 산업용 증기를 함께 공급하는 방식 - 한국남동발전, 경북개발공사, 포항신재생에너지㈜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2016년 2월 포항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2024년 11월 산업부로부터 최종 공사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5500억원을 투자해 4만6000㎡ 규모에 설비용량 110MW(연간전력생산량 77만796MWh, 약 20만 가구 연간사용량)로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 연간 55만t을 사용하는 구조 - 컨소시엄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지역지원·장학복지사업 등에 총 195억을 내놓고 400여명의 직간접 일자리 창출과 지역주민 우선채용, 지역업체 우선 활용 등을 제공할 방침이나, 지역 일부 환경단체 반대로 난항을 거듭해 왔고 올해 12월말까지 착공하지 못하면 사업권을 반납해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
지방기관	□ **전북연구원, 새만금 탄소중립 실증거점 육성 제안(2026.10.22)** - 전북연구원이 21일 이슈브리핑 제354호 '버려지던 열, 새만금에서 새로운 에너지로'를 발간하고 미활용 열을 활용한 에너지 효율 향상과 산업화 방안을 제시했으며, 버려지는 열로 냉방 전력 사용량을 최대 52% 줄일 수 있다는 국내 기술 실증 결과를 기반으로 새만금을 국가 탄소중립 기술의 통합 실증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 - 연구에서는 국내 한 기업이 연료전지에서 발생하는 미활용 열을 냉방에 활용해 일반 시스템에어컨보다 전력 사용량을 약 45~52%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으며, 연구진은 이 기술을 스마트팜과 콜드체인, 산업시설 등으로 확대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와 ESS, 수소·암모니아, 연료전지, AI를 연계하는 'Energy Waste Zero 국가통합실증'을 제안 - 새만금은 재생에너지 생산기반과 산업단지, 신항만, 스마트 수변도시 등을 갖춰 에너지 생산부터 저장·전환·활용까지 전 과정을 검증할 수 있는 지역으로 평가됐으며, 연구진은 실증 성과를 산업단지·신항만 등으로 확대하고 검증된 기술을 특허·표준·운영데이터 등 국가기술자산으로 축적해 'K-탄소중립 패키지'로 산업화하고 해외시장 진출까지 연결하는 방안도 제시
지방기관	□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어린이·어르신 탄소중립 교육(2026.10.21)** -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센터장 김진근)가 9월부터 '제2회 제주삼다수 Happy+ 환경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환경안전·탄소중립 실천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은 어린이집과 노인주간보호시설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어린이·시니어 맞춤 교육 - 교육은 어린이와 어르신의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환경동화와 놀이, 생활용품 체험 등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절전 멀티탭과 친환경 세제 등으로 구성된 '환경안심 실천키트'를 실습재료로 활용하고 교육이 끝나면 참여자들에게 이 키트를 지급해 가정에서도 교육 내용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 - 가정용 환경안전·에너지 절감 실천 체크리스트를 통해 환기, 전기안전, 에너지 절약 등 일상생활 속 실천도 유도하고 있으며, 김진근 센터장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은 일상생활 속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어린이와 어르신들이 스스로 실천 방법을 익히고 가정과 지역사회로 탄소중립 생활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방기관	□ **SH, 은평구 공공주택 AI 난방 제어 시범 도입(2026.10.27)**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협력해 서울 은평구 공공주택 100가구에 인공지능(AI) 기반 난방 제어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는 'AI 세대 맞춤형 난방 지키미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으며, 가구별 난방 사용 패턴에 따라 실내 온도를 자동 조절하고 실제 에너지 사용량과 난방비 절감 효과를 검증할 계획 - 기존 노후 온도조절기를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온도조절기로 교체해 입주민이 모바일 앱으로 원격 제어하고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AI는 외부 기온과 시간대, 가구별 난방 사용 패턴 등을 학습해 적정 실내 온도를 자동 유지하고 클라우드 서버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분석해 맞춤형 에너지 절약 가이드도 제공 - SH는 이달 입주민 100가구를 모집하고 다음 달 온도조절기 교체와 모바일 앱 설치를 진행한 뒤 내년 4월까지 난방 에너지 사용량과 비용 절감 효과, 이용 편의성 등을 분석할 예정이며,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에너지 절감 효과와 입주민 만족도를 검토해 신규 임대주택 설계와 기존 단지에 스마트 난방 시스템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
	□ **경기도교육청, 중학교 생성형 AI 사용 금지 검토(2026.10.27)** - 경기도교육청이 '폰 프리 스쿨' 정책에 이어 중학교 단계까지 생성형 AI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27일 포천 한얼교회에서 열린 학부모 타운홀 미팅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한 폰 프리 스쿨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만큼 다음 단계로 중학교까지 생성형 AI 사용을 금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 - 안 교육감은 검토 이유로 학생들의 사고력 저하를 꼽으며 아이들이 모르는 것을 스스로 고민해 해결하지 않고 챗GPT나 제미나이(Gemini) 등 AI에 즉각 물어보고 있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버릴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고, 세계적인 교육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방기관	트렌드 역시 학교 현장에서의 생성형 AI를 규제하는 것이 추세라고 설명 - 다만 AI 교육 자체와 생성형 AI의 무분별한 사용은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며 AI 교육은 차질 없이 진행하되 생성형 AI 사용에 제동을 거는 것은 교육감으로서 결단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으며, 도교육청은 30일 안산·의정부 지역을 마지막으로 지역별 타운홀 미팅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현장에서 취합한 의견을 향후 교육정책 수립에 반영할 방침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지바이크, 지쿠 전기자전거 탄소중립포인트 4배 적립(2026.10.23)** - 국내 최대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 '지쿠(GCOO)'를 운영하는 지바이크가 11월 30일까지 지쿠 공유 전기자전거 이용 시 탄소중립포인트를 4배 적립받을 수 있다고 23일 밝혔으며, 지바이크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운영하는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실천' 사업 중 공유자전거 이용 부문에 민간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참여 -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실천은 공유자전거 탑승과 전자영수증 발급 등 일상 속 탄소 감축 활동에 정부가 1인당 연간 최대 7만원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로, 지쿠·따릉이·누비자 등 공유자전거 이용 시 km당 100원이 적립되며 11월 30일까지는 기존의 4배인 km당 400원을 적립할 수 있고 기후시민증 발급 시 총 2000원의 기본 혜택도 추가 - 이날 지바이크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지쿠 탑승자가 화석연료 대신 친환경 모빌리티로 달린 누적 거리는 연간 8800만km로 지구 2200바퀴 규모이며, 절감한 온실가스는 연간 1만톤 이상으로 여의도 면적 12배 크기 대형 숲의 탄소 흡수 효과와 같고 이용자 1인당 페트병 100여 개를 재활용한 셈이라는 것이 회사 측 설명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기타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화석연료금융 백서 발간(2026.10.27)**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펴낸 「2025 한국 화석연료금융 백서」에 따르면 국내 금융기관이 석탄·석유·가스 사업에 빌려주거나 투자한 금액은 2025년 말 기준 195.5조 원이며, 이 가운데 65%인 127조 원이 국민연금과 정책금융기관 같은 공적금융에서 나와 민간 금융사 합계(68.5조 원)의 2배에 가까운 수준 - 국민연금 한 곳의 화석연료 투자만 57.3조 원으로 국내 은행 전체(29.4조 원)의 2배에 이르고 한국수출입은행 27.6조 원, 한국산업은행 26.4조 원이 뒤를 이었으며, 공적금융의 화석연료 투자는 대부분 한국전력을 거쳐 석탄발전으로 이어져 공적금융의 석탄금융 50.6조 원 가운데 75.5%가 한전과 발전자회사에 투입된 것으로 분석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화석연료로 향하는 자금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국내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등 전환에 필요한 분야로 자금의 방향을 돌려야 한다고 밝혔으며, 김현정 의원은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와 공적금융의 자금 흐름이 따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며 공적금융기관의 여신·보증 심사에 기후 리스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강조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KAI, 우주서 AI 위성 고장 진단 실증 성공(2026.10.21)** -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지난 20일 위성의 'AI 기반 자율운영 기술' 시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21일 밝혔으며, 우주 궤도에서 인공지능(AI)으로 위성의 이상 상태를 분석하고 대응책을 도출하는 기술을 실증한 것으로 궤도에서 실시간 상황 판단이 가능해 위성의 생존성을 높이고 지상국과의 통신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설명 - 지난 3월 KAI와 스페이스린텍이 체결한 큐브위성 AI 실증 협약의 후속 사업으로 연세대학교와 펀진 등도 참여했으며, 이달 7일 누리호 5차 발사로 우주에 진입한 큐브위성 'BEE-1012'에 탑재된 KAI 자체 개발 AI 모듈이 지상국이 보낸 가상의 고장 신호에 대해 원인과 범위를 분석하고 대응책을 담은 기술 보고서를 생성해 지상국으로 전송 - KAI는 항공기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고장·수명예측시스템과 예지정비 기술을 접목해 수만 가지 고장 시나리오를 학습시킨 AI 모듈을 개발하고 모빌린트의 신경망 처리장치(NPU)도 적용했으며, 12월부터 본격적인 자율운영 기술 실증에 착수할 예정으로 기술 신뢰성을 높인 뒤 향후 제작할 다양한 위성 시스템의 핵심 표준 사양으로 적용할 방침
	□ **KT, 인천 UAM 실증서 AI 교통관리 기술 검증(2026.10.21)** - KT가 인천광역시, 항공우주산학융합원, K-UAM 원팀과 함께 인천 도서 지역에서 공공형 도심항공교통(UAM) 실증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21일 밝혔으며, 인공지능(AI) 교통관리 기술을 실제 비행 환경에서 검증하고 5G 이동통신과 위성통신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항공망으로 전 구간에서 통신 성공률 100%를 기록 - KT·현대자동차·현대건설·인천국제공항공사·대한항공으로 구성된 K-UAM 원팀은 국토교통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협력해 'K-UAM 그랜드챌린지'에서 축적한 통합운용 역량을 영종도 거잠포, 왕산마리나와 덕적도를 오가는 노선에 적용했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으며, 도서 지역 주민의 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공형 운항 노선을 구체화하고 도심항공 데이터 유통체계도 점검 - KT는 자체 개발한 'UAM 에이전트 기반 교통관리 AX 플랫폼'을 5G·위성 하이브리드 항공망 및 도심항공 데이터 유통체계와 연계해 실제 도서·해상 비행 환경에서 AI 기반 교통관리 기술과 통신망의 안정성을 검증했으며, 이번 실증을 국토교통부와 지방정부, 민간기업이 협력한 국내 최초 도서 지역 공공형 UAM 실증 사례라고 평가
	□ **아이엘, 피지컬AI 데이터 플랫폼 '피데이텀' 공개(2026.10.26)** - 아이엘이 산업 현장에서 로봇이 생성하는 운영 데이터를 인공지능(AI) 학습 자산으로 활용하는 피지컬AI 데이터 플랫폼 '피데이텀(PHYDATUM)'을 공개했다고 26일 밝혔으며, 피데이텀은 로봇의 작업·이동·상태·장애·복구 등의 데이터를 수집·표준화하고 이를 AI 학습과 성능 개선에 활용하는 피지컬AI 통합 플랫폼 - 로봇이 작업할수록 데이터가 쌓이고 이를 활용해 AI 성능을 높여 다시 현장에 적용하는 구조로, 아이엘은 자동차부품 제조 현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운용하며 작업 데이터를 확보해 왔고 지난 9월 2억2000만원 규모의 로봇 및 피지컬AI 데이터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플랫폼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할 계획 - 데이터 수집, 표준화·축적, AI 학습, 운영·분석(Ops)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장기간 산업 현장에서 축적한 운영 데이터를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확보해 데이터 사업도 확대할 전략이며, 회사 측은 로봇 하드웨어는 구매할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축적된 운영 데이터와 경험은 단기간에 복제할 수 없다고 강조
	□ **바딧, AI 정밀사육 솔루션으로 송아지 폐사율 감소(2026.10.22)** - 국내 스타트업 바딧이 소의 미세한 움직임을 분석하는 AI 정밀사육 솔루션 '파머스핸즈'를 개발해 송아지 폐사율을 낮추기 위한 결정과 조치를 돕고 있으며, 케냐 등 개발도상국에 이어 미국 등 축산 선진국으로 활용 범위를 넓히는 가운데 신민용 대표는 21일 인터뷰에서 소가 몸으로 보내는 신호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정보로 바꾸는 것이 회사의 일이라고 설명 - 파머스핸즈는 소의 목에 부착한 가속도·각속도 센서로 움직임을 수집하고 AI로 기침·반추(되새김질)·포유(젖 빨기)·사료 섭취 등 구체적인 행동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기존 장비가 주로 소의 활동량 변화를 측정했다면 파머스핸즈는 미세한 행동의 차이까지 분석해 질병 징후를 포착하고 번식에 적합한 시기도 알려주는 것이 특징 - 신 대표가 사람의 생체 신호를 분석하는 웨어러블 의료기기를 개발하다 축산 연구자들의 제안으로 적용 분야를 넓혔으며, 축적한 소의 행동 데이터는 5100만건, 누적 분석 시간은 2600만시간을 넘어 행동 구분 정확도가 90% 이상이고, 바딧에 따르면 2020년 송아지 256마리 대상 실증에서 폐사율이 32%에서 0%대로 떨어진 것으로 소개
대학교	□ **포스텍, 로데슈바르즈코리아와 AI 캠퍼스 협약(2026.10.23)** - 포항공과대학교(포스텍) 하이퍼 세이프 자율지능연구소가 포스텍이 추진 중인 ANCHOR 사업의 일환으로 IT·통신 계측 장비 기업 로데슈바르즈코리아와 특화망 인프라 기반 'AI 캠퍼스' 구축과 'AX 기술'의 지역사회 확산을 목표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특화망 서비스를 통한 AI 시티 조성을 위한 기술 협력 차원 -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특화망 기반 차세대 Private Network Solution 기술 개발, 6G 미래 무선 기술 연구, 자율주행차·로봇 등 다양한 Physical AI Use Case 도입 및 개발, AX 관련 핵심 미래기술 분야 협력 등을 공동 추진하며, 포괄적인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기술 실행 방안을 포함했다는 점에서 주목 - 로데슈바르즈코리아는 CMX500 One-box test solution, SMW200A Vector Signal Generator 등 독일 본사에서 개발한 무선 통신 테스트 및 시뮬레이션 솔루션을 제공해 연구소가 추진 중인 'AX 전환 기술 개발 및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양 기관의 기술적 성장을 함께 도모할 예정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이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